



배려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 인봉교육통신

교무실 ☎ 240-1908  
통합교육지원반 ☎ 240-1921  
<http://www.inbong.es.kr>  
가정통신문탑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을 위한 간단한 안내 자료를 배부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저마다 다른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조화의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전주인봉초등학교 1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간 행사



### 😊 전교생 대상 장애 이해 및 공감교육

- 주제: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
- 대상: 1~6학년 모든 학생 (47학급, 1,255명)
- 기간: 2019. 4. 12.(금) ~ 4. 19.(금)
- 방법: able artist(장애인 예술가)의 공연 감상, 본교 특수교사와 에이블 양상블이 함께하는 장애 공감을 주제로 한누리관에서 학년별 교육 실시

### 😊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공감교육

- 주제: 동행으로 행복한 삶(동행, 행복)
- 대상: 전교생 및 학부모, 교직원
- 일자: 2019. 4. 10.(수)
- 내용: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안내, 장애공감 만화 등
- ★ 학생 참여 행사 도전! 나도 시인 '시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식은 통합교육지원반 누리집 첨부)

### 😊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인민교육

- 주제: 빛나지 않는 별, 차별
- 대상: 교직원
- 일자: 2019. 4. 26.(목)
- 장소: 교무실
- 내용: 퀴즈로 알아보는 장애인해 및 장애인 인권교육

#### EVENT 1 도전! 나도 시인! 학생 참여 행사

## 시작

지금껏 본 적 없는 센스 있는 시로 따뜻한 UP!

**“독자를 압도하는 시 한 편”**  
주제: 장애 공감 및 장애인식개선 부문: 2행시/3행시/4행시/5행시  
대사: ‘다르지만 같아!’ 주제 시  
대상: 전주인봉초 학생 누구나

‘시작!’ 나도 시인 참가 증이는 설성정 선생님께서 받아 가야 합니다  
아무 시나 내면 안 받아요!

2019년 4월 22일 우수학생에게는 월요일까지 제출 선물을 줍니다

우수작품은 인봉초등학교 대표로 전국 백일장 교육부장관상까지!



#### EVENT 2 학급 참여 행사 4월 29일 월요일까지

톡.톡.톡(Talk) 다른 생각, 같은 우리  
**소감롤링페이퍼 쓰고, 우리 반 모두 간식 먹자!**

1. 4월 12일~19일 장애공감교육을 열심히 듣는다
2. 교육 후 느낀 점이나 소감을 포스트잇에 적는다
3. 4월 29일에 우리 반 소감을 모두 부착한다
-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모두 참여한다
4. 롤링페이퍼를 정성스럽게 꾸민다(좀 예쁘게)
5. 완성되면 큰술반 선생님께 제출한다
6. 언젠가 교실에 간식이 도착하면 맛있게 먹는다



#### EVENT 3 교직원 참여 행사

1학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주간,  
**장애공감 비주얼씽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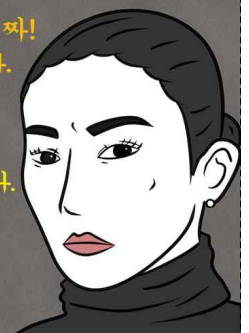
지난 학기 ‘특수교육 고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는 ‘장애공감 비주얼씽킹 퀴즈’입니다.  
인봉초등학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번 퀴즈는 진짜!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참가하면 선물을 줍니다.  
우수 선생님에게는 좀 더 크게 줍니다?

4월 22일 월요일까지  
고민할 시간에 지금 참여하세요.



※위 행사 안내장은 전주인봉초등학교 통합교육지원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산 줄다리기

충주 용산초등학교 5학년  
임희진



특수반 친구랑 비 오는 날  
우산하나에  
꼭 붙어 길을 걷는데  
내 어깨가 빗물에 닿아  
난 모른 척 내 쪽으로  
우산을 당겨 딴 곳을 본다.

순간 친구는 내가 비에 젖지 않게  
슬쩍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여준다.

나도 미안함에  
친구 쪽으로 우산을 밀어준다.

나도 슬쩍, 친구도 슬쩍  
밀어주기 우산 줄다리기를 한다.

젖지 않은 나와 친구의 한쪽 팔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현강특수교육



2018 제25권  
SPRING STORY

장애인연자실천운동본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19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작품집 중 초등 시 부문 대상





편견을 접으면  
그들의 **능력**이  
보입니다.



발행일 : 2019. 4. 10.(수)  
펴낸이 : 교장 이영란  
살핀이 : 교감 변지숙  
만든이 : 교사 설성정

지금까지 이런 세상은 없었다!

**상 상 만 해 도 재 미 없 다**

다름  
다운



만약, 급식에 당근만 놓여 있다면?



만약, 동물원에 코끼리 밖에 없다면?



만약, TV에서 똑같은 방송만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같다면? 서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요**  
**다름이 당당해질 때 비로소 세상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요**

## 통합교육지원반 이야기

하나. 통합교육지원반은  
어떤 곳인가요?

◦ 공부와 학교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개별화된 공부를 합니다. 영어가 부족한 친구가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각 반 선생님,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둘. 통합교육지원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 선생님의 이름은 설성정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통합교육지원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또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생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여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 되돌아 보는 날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먼 훗날, 다름이 인정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장애인의 날'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장애인의 날  
영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폐성 장애  
이해하기

눈맞춤 대신 마음맞춤



글·그림: 김우용(강릉 주문진초등학교 교사)

장애인의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장애인의 날  
영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2019. 4. 10.

전 주 인 봉 초 등 학 교 장